

권두 에세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태를 버리자

저자 : 신향식 (Shin, Hangsik)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회장

ssbrand@daum.net

1. 독재의 추억에 알량한 도덕감을 심다

1.1. 쓸데없이 참견하는 한국인들

필자는 평생 경찰서에 두 번 갔다.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지 몇 년 안에 우르르 벌어진 일이나 30대 중반 언저리였다. 한 번은 노래방에 동석한 지인의 여인이 블루스를 추자해서 거절했더니 저녁 내내 시비를 걸어 급기야 따귀를 주고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 맛이 없다는 필자의 혼잣말을 고깝게 들은 식당 주인이 떡살을 잡는 바람에 티격태격 사이 좋게 같이 별금을 내었다. 한국에서의 이 터프한 경험에 질려 사람들에게 무신경하자 다짐했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구질구질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단 몇 년 전까지도 노트북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남자, 흡연 별금을 요구했던 동사무소 직원, 사람 없어 좌측통행하는 것에 뭐라 했던 노인 등이 있었다. 필자는 이들을 폭력, 사생활 침해, 고지의무 불성실 이행, 업무방해죄로 조용히 신고했다. 고소를 하려다 그만 둔 경우도 많았다. 퇴직한 필자에게 임용서류가 미비했다고 소문을 냈던 시대착오 교수, 평소 친했던 학생과 애인관계라 소문을 퍼뜨린 질투녀 교수, ‘꿈꿈이 생각해보니’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이메일을 보낸 교수협회의 사춘기 여교수, 칼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로 졸졸 따라다닌 라이벌 교수의 제자 등이다. 신고를 하려니 이 불쌍한 백성들이 갑자기 병원에 드러눕거나, 영영 울거나, 잠적하거나, 다른 일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살려 주었다.

그랬다. 한국 사람들은 가만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얼 자꾸 함께 하자고 했고 자기편이 되어 달라고 했다. 사태를 구질구질한 지경으로 이끌면서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다. 싫다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도 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남을 무시하나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들의 충고와 하소연은 필자를 위한 것도, 필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생활 습성이 그런 것이었다. 당시에는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런 습성이 그들에게는 참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참견민주주의였다.

이 간섭쟁이들과의 갈등에서 필자가 모두 이겼다. 간섭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 처벌의 기준인데, 간섭당한 사람이 이기지 간섭 한 사람이 어찌 이기겠는가. 필자의 얼굴에 간섭을 부르는 아우라가 있지 않다면,

정색을 하고 질문을 해 보자. 득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싫다는 사람에게 참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시대에 대한 고민과 비판일 터인데, 어찌 세계와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가만있는 옆 사람에게만 그리 참견을 해대는 것일까?

1.2. 독재의 잔재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간섭쟁이들은 한결같이 도덕감(측은함, 정의감, 사회윤리 등)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감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충고했고 자기 말을 들으라 한 것이다. 자기들 홀로 도덕이라 생각한 것이어서 도덕이라기보다 도덕감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들은 도덕의 기준이 하나인 줄 알았고, 수준도 남들과 서로 같은 줄 알았다. 그래서 필자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다. 요새 젊은이들의 속된 말로 역관광을 당한 것이다.

도덕적 착각에 관하여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젊은이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는 것은 피곤해서도 아니고 이기적이어서도 아니다. 그냥 앉는 것뿐이다. 그 까짓 자리란 것이 하등의 도덕적 고려대상도 아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를 두고 ‘이 자리가 그리 탐나슈?’ 같이 유치한 표어나 붙여 놓는 지하철 공사의 정신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협소하고도 수준 낮은 도덕감이다.

한국인은 더 이상 독재시대를 살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생활의식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 민권의식과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국가의 규약(code)보다는 사회의 계약(contract)이 우선한다.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면 잡혀간다. 자기만의 도덕감을 가지고 무작정 ‘우리 함께’, ‘우리 편’이라니 이 무슨 행패인가? 우리가 함께 편을 짜고 싶다면, 그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민주사회란 원래 그런 것이다.

20년 전 필자에게 춤을 거절당한 여인은 여성으로서 자신을 거절당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자존심에 화가 났을 것이다. 허나, 춤을 거절하는 것과 여성의 자존심이 서로 관계한다는 생각은 필자의 머릿속에 없었다. 필자가 독신이었던 춤 제의를 거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를 낸 식당주인은 손님인 필자보다 자기의 요리를 숭배했던 것 같다. 나=요리는 자신에게는 정당했는지 몰라도 필자에게는 정당하지 않다. 자기에 게만 설득되는 이유와 도덕이라면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남에게 강제할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토록 단순한 인간사를 몰랐던 것이다.

당일 무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트북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 했던 남자, 흡연적발 동사무소 직원, 우측통행을 강제했던 노인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공무규범을 간섭의 명분으로 삼았다. 시민생활을 통제하는 공무는 시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의회 공청회, 대중미디어를 통한 논쟁과 논의, 법적 검토, 학술논쟁, 개인 간 협의, 길고 충분한 고지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시민교양을 염두에 두고 배려, 허용, 대화, 눈치 등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국회의 논의도 없이, 사소한 시민생활 속의 규범을 마치 헌법 적용하듯이 강제하는 것은 독재이다. 더욱이 벌금이나 뜯으려 시민생활에 함부로 참견하는 것은 공무가 아니라 시정잡배가 하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성방가, 우측통행, 불조심, 물조심, 아이조심, 길 건너기, 금연과 담배꽂초, 쓰레기 처리, 지하철 자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을 국가가 세심하게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뿌리 채 없애는 파시즘이다. 세상을 멋대로 해석해서 간섭을 정당화 했던 교수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얼마나 경쟁에 몸부림을 쳤고, 남을 깎아 내리고 싶어 열성으로 험담을 떨었길래, 험담이 세뇌가 되고 자기만의 규범이 되어 남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민주시민은 사회에 참여하지만, 파시스트들은 개인에게 참견을 한다. 파시스트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정치적이지만(Personal is political) 민주주의자들에게는 오로지 사회적인 참여만이 정치적이다(Social is political). 개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삶의 모든 면이 정치적일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민주시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1.3. 당신 정도의 도덕은 누구나 가지고 산다

남의 일에 시비를 걸고 참견하는 원인 한 두 가지가 이미 나온 셈이다. 언제나 변하며 해석할 여지가 많은 동시에 상위법과 충돌하는 규범을 멋대로 보편인 양 생각하는 바람에 인식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먼저이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 스스로에게 뽐내고 싶은 알량한 윤리가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말했듯이, 남을 참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상대가 ‘사회적 질서나 인간적 정의를 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남에게 함부로 강요할 질서나 정의라면 모두가 아는 당연한 것들이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윤리를 자기만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가만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살인하고 싶지 않아’라 말하는 것과 같다. 무섭지 않은가. 알량한 도덕의식은 사람을 두렵게도 우습게도 만든다. 가소로운 지적 수준을 가진 주제에 무섭고도 웃기는 도덕의식을 강요하니 말이다.

결론인 즉, 독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제에 평소에 자기는 잘 냈고 남은 못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참견을 하는 것이다. 상대도 당신만큼 삶과 윤리를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생각도 없이 어디서 주위들은 말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돌아오는 것은 봉변 밖에 없다.

요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봉변을 많이 당한다고 한다.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젊은이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무엇이 잘났다고 지하철에서 빈자리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인생이 다 지나도록 위정자들에게 속아 국정을 농단시켜 놓고 무슨 노인의 지혜냐고 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노인은 늙어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었기 때문에 공경 받는 것이다. 역사의 직무를 유기한 주제에 “너 몇 살이나” 꼰대 같은 소리는 결국 “늙으면 죽어야 해”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2. 사이비 윤리학

2.1. 사이비 정치의식

참견하고 남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자신이 규범으로 삼은 것들이 과연 객관적인가 점검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국 노인들이 술안주로 삼는 정치이념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정치이념과 제도는 한국의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 수입한 것들이다. 그래도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찾아 잘 활용했다면 우리 삶에 맞게 만들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법-조례-규칙과 국민행복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철수가 지금은 실업자지만 나중에는 취업자가 될 것이고 영희가 지금은 취업자지만 나중에는 실업자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철수와 영희가 서로 만족하도록 법이나 조례를 만들까? 이런 질문이다. 여기서 서구식의 보수-진보, 좌파-우파라는 개념도 자동스럽게 따라온다.

심리적으로 보아, 보수라는 것은 나라가 이루어 놓

은 것이 많은데다가 어느 정도 기능도 잘 될 때 가지는 심성이자 이치이다. 우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열추 풍족하니 규칙과 법을 잘 지키고 현실이 규칙과 법에 어긋나면 법을 몇 군데 개정하여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지키자는 보수의 정치이다. 중간층이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 우파의 정치가 융성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보수는 문화이고 우파는 정치이다. 가진 것이 많거나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꿈을 꾸는 정령가 노인들이 주로 보수이고 제역할에 충실한 전문가로서의 법관들이 주로 우파이다.

이런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면 진보, 좌파들이 많아지는 것도 삶의 심성이며 이치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파의 정치는 법-조례-규칙을 앞세워 국민 행복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좌파의 정치는 국민행복을 앞세워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좌우의 균형이 깨지고, 극소수 엘리트가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도덕감 그리고 법-조례-규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면 파시즘이 된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파시즘만 경험해 왔다. 좌우 균형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같은 폭력 세력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조선시대의 임금을 흉내 내며 자신들을 진보좌파, 보수우파라고 자칭했다. 폭력의 추억에 친숙한 노인들도 줄을 이어 이들을 따랐다. 그러나 좌로 불리든 우로 불리든 이들은 모두 파시스트였다. 이들에 의해 해방 후 교과서적으로나마 논의되던 좌우 정치이념이 붕괴되어 갔다.

한국에서는 조봉암, 양일동 이래 좌파의 전통이 없다. 김구, 장준하 이래 우파의 전통도 거의 없다. 오로지 사이버 이념만이 현대사를 농단했다. 이 파행의 역사는 우파정부를 제대로 만들어보려 했던 김구, 장준하, 이영희 같은 이들과 좌파라고 불렸다. 진보 혹은 좌파라 자칭하는 이들도 이런 호칭에 익숙했다. 맞서 싸웠던 상대가 정치적인 정체성이 없는 바람에 싸움 도중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국가운영을 개인치세를 위해 사용했던 이들을 우파라고 부르거나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신자유주의 우파들을 진보적이라 부르거나 어떤 바보들은 좌파라고까지 부른 것이다.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정치문화가 서구와 다르니만큼 진보, 좌파, 보수, 우파 등의 단어나 연합개념을 아예 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기왕 들어와 자리를 잡은 내용들이니 어떡해서든 머리와 마음을 잘 굴려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듬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체주의와 폭력의 추억에

젓어 살았던 ‘전쟁 겪어 봤어?’ 노인들의 사이버 안보문화, 분단문화 때문에 한국인 스스로 현실을 개념화할 능력을 많이 잃었고 현재에도 능력발휘가 잘 되지 않는다.

작금, 중복이며 국가안보며 김정은 설레발을 치는 노인들은 잘 보아주어야 전쟁 당시 젓동냥으로 살았거나 초콜릿 떨귀 주던 미군트럭을 따라 다닌 소년들이다. 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를 겪었고 전후복구 경제와 정치를 경험했을 뿐이다. 과연 전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정상경제가 무엇인지, 정상정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노인들만 사이버 의식을 가졌을까?

2.2. 사대를 잘 못하는 한국인들

한국인들이 사이버 정치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일제와 분단의 역사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유로 사대주의가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유학을 했다고 말하면 자기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미국유학이 무슨 대수냐며 위선과 억하심정을 드러낼 만큼 사대주의가 뻗속까지 깊다. 사대를 하든 못하든 둘 다 똑같은 사대주의이다. 상대에게 사대감이 없다면 좋다 나쁘다는 평가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다. 함께 문화도 따로 만들어 내고 이를 깊게 받아들여 온 세월도 오래 흘렀다. 즉 민족의 개성이 독특해서 서구를 따라가고 싶어도 잘 못한다. 생활문화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서구인들은 자만하기 때문에 허영을 띤다. 한국인은 남에게 체면을 세우려 허영을 띤다. 허세의 근원부터 다르다. 서구인은 제 직업 안에서 성공한 것이 곧 출세다. 한국인은 세간이 원하는 직업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출세다. 직업관부터 다르다. 한국인은 국적, 성별, 나이, 직업, 가문과 같이 자아의 배경을 자아와 동일시한다. 그러하니 “~로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 라는 희한한 대표자 의식마저 가지고 있다.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표현이다. 해외 나가면 자기가 외교관인 줄 착각을 한다. 성인이 경찰서에 가도 부모님 모셔오라는 참으로 희한한 사회다. 반면 서구인은 세계 어디를 가든 자기는 자기 자신일 뿐이다.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히틀러의 조카 정도 밖에 없다.

이리 인생관이 다르니 세계관도 다르다. 한국 사람

이 독립한다는 것은 홀로 노동하며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과 장소를 바꾼다는 뜻이 더 크다.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독립국가라는 뜻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는 싫지만 강대국이나 주변국에 의존하는 것을 외교라고 여긴다. 서구사회에서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전용 서비스나 창구를 설치하는 인종차별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비교의 예는 차고도 넘친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리도 달라 서구 사대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것이다. 잘하지도 못하는 사대를 도대체 왜 하려는 것일까?

2.3. 집안에서 써 먹는 사대주의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의 대다수는 허영심과 이기주의에서 온다. 한국에서 차별의 문제라 한다면 이런 허영심과 이기주의의 토대를 봉건적이고도 국가주의적인 차별의식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의 차이보다 서울대/일반대가 더 차별의 비중이 크다.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이나 지역의 차별 비중이 더 크다. 사회의 합리적인 질서보다 권력의 질서가 사람들 마음속에 더 크다. 출세를 위해서 정해진 항목과 순위가 따로 있다.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출세의 항목과 순위에 들기 위해 젊은이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에 뛰어들고 노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뒤를 받쳐준다. 출세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순위에서 밀리면 출세가 아니라 단지 ‘열심히 사셨군요’ 라는 말을 듣고 사라진다.

나라 전체와 역사가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만큼 긴 시간이 흘러도 차별에 의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항목에 들지 못해도 차별이고 순위에 따라서도 차별한다. 그러하니 너도 나도 한이 많다(한이란 실은 트라우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바깥에서 전해들은 자기 외의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차별하는데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차별적으로 보는 인생을 살 기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소수만이 그런 시간을 찾는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거대한 기준 중 하나가 서구이며 이제는 차별의 기준을 넘어 삶의 토대가 되어 버렸다. 자국의 외교,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과 사법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제도와 사례를 미국과 같은 큰 국가로부터 빌려 온다. 진보적인 이념마저도 그 곳에서 베껴 온다. 한국의 여성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미국에서 수입해 온다. 불

교에서 충분히 다루는 동성애문제도 어찌 접근을 하지 못해 천년 이상 기독교와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켜 온 LGBT를 수입한다. 한국의 불교계도 그것을 그대로 수입한다.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이라 해도 미국이 한국을 평가하는 언사에 화들짝 놀란다. 미국의 기준 위에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다.

사대주의는 한 사회의 꿈으로 다가왔다가 상대를 통해 자신을 이미지화하고 결국 현실과 점점 유리되는 집단 정신분열증이다.¹⁾ 미국과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한국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를 피해의식에 빠뜨리는 사회-민족병리의 원인이며 민중 스스로 반성하지도 못하게 하는 지적 방벽이기 때문에 진정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상대가 진정 악마 같은 이라 해도 이내 비난을 접고 해결책을 찾는다. 자기 삶을 이끄는 일이 남을 비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략은 타인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넘쳐흘러 나온 열등감이다. 그러하니 남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나 비판의 수준을 보면 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자기보존 의지의 질량도 알 수 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사람됨의 그릇도 작고 의지도 가볍기 때문에 남이 자신을 알아주어야만 삶을 살아가는 뜻대 없는 사람이다. 사대주의도 바로 그런 것이다.

3. 누구 맘대로 사대주의인가?

3.1. 역사란 무엇인가?

장 자크 루소가 진정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했을까? 맹자, 순자처럼 철학적 논쟁 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종교권력을 무너뜨리자고 달려들었

1) 정신병으로서의 사대주의는 의사 파농(Franz Fanon)의 서적을 참고. Fanon F.(2014),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한국: 문학동네. 정신병의 사회, 민족병리학적 발전현상에 대한 접근은 바스티드(Roger Bastide)를 참고. "정신병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정신의학만큼이나 사회학적 주제이다." Bastide R.(1972), The Sociology of Mental Disorder, USA: David McKay Co; (1965), Sociologie des maladies mentales. France: Flammarion, p. 278; (1972), Le rève, la transe et la folie, France: Flammarion, 1972. 바스티드는 브라질과 남미 전공 인류학자이다. 서구의 새로운 문물이 원주민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탈문화 과정이 어떻게 원주민 문화와 조화(syncretism)를 이루는가의 과정을 연구해 왔다.

던 18세기였다. 루소의 말은 곧 ‘인간의 본성은 선하므로 종교가 필요 없다’ 는 뜻이다.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 “는 처칠의 말이 현재는 격언이지만, 이는 전후 미국에게 통제로 빼앗길 뻔했던 영국엘리트의 권력을 보장받은 후에 노예처럼 내뱉은 말이다.

역사는 이처럼 맥(text)은 전달하지만 문맥(context)은 잡아 주지 않는다. 문맥을 모른 채 말을 끝이곧대로 이해하면 바보가 되듯이, 역사를 끝이곧대로 믿어도 바보가 된다. 검소했고 평화주의자였던 마리 앙투와네트 왕비가 조심하라 했던 인신매매업자 볼테르는 서양사에 의해 숭배되었고 근대문화의 초석을 놓았다. 해적왕 라피트가 유럽혁명을 위해 이용해 먹어야겠다고 한 칼 맑스는 정말로 그렇게 이용당했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소련을 무너뜨려 서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역할이 끝난 고르바초프에게 관심을 주는 이는 이제 없다. 솔제니친이 추앙받은 이유는 러시아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의 엘리트를 비판하는 그의 책은 출간은커녕 번역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이 따위다. 역사의 말 뒤에는 항상 그 말을 만든 시대의 엘리트들이 있다.

스미스, 맑스, 베버, 트로츠키, 토인비, 헉슬리, 아도르노, 마르크제, 케인즈, 하이에크, 토폴러, 브레진스키, 헌팅턴, 아탈리 등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현장에서 유명한 서구인들 대다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구의 민중과 비서구사회에 손해를 주고 엘리트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주는 인물들이다. 엘리트의 이익에 반했던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쓴 역사에 의해 진짜로 사라져 갔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 것만 간추려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역사에게 맡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사이드 서양사이드 패자와 민초가 기록하는 역사가 진짜 역사이다.²⁾

2) 간단한 예라면 미국 건국의 폭력성과 인디언 학살을 고발한 미국의 진(Howard Zinn), 프랑스혁명의 사이비성을 고발한 뤼레(Francois Furet)와 1968년 학생운동의 반동성을 고발한 드브레이(Regis Debray)와 페리(Luc Ferry)가 있다. 나치 유대인학살의 허구성을 고발한 포리송(Robert Faurisson)도 역사로부터 지워지고 있다. 현대가 지워버리려 했던 학자들을 발채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철학자 역사의 Ibn Khaldun, Anton Wilhelm Amo, Cheikh Anta Diop, Joseph Davidovits, Martin Bernal, Sri Aurobindo, Anatoly Fomenko 민중의 경제사회 공동체 문제를 다루는 Augustin Theiry, Mikhail Bakunin, Phillip Doellinger, Peter Kropotkin, Rudolf Rucker, Errico Malatesta, Elisee Reclus, Etienne Chuard, Frederick Lordon 근대정치 및 사회 이론으로 Eugene Düring, Augustin Cochin, Charles Maurras, Charles Peguy, Celine, Robert Michels, Maurice Bardesch, Michel Clouscard, Thomas Goodrich, 엘리트의 경제독점과 노

3.2.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한국인들이 정이 많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웃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단지 정을 나누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한국인들은 일상으로 잔정을 많이 준다. 속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이 크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참견도 많은 것이다. 이는 필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이런 잔정 습성 혹은 냄비 감정은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물이다. 좋다, 행복하다, 그립다, 섭섭하다, 슬프다, 짜증난다, 아프다 등의 감정을 함부로 가지거나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곳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개인과 사회의 이면에 줄 곳 이성적인 계산이 숨어 있거나 냉혈 같은 시장논리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사회에서도 눈물로 호소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하늘을 보며 기뻐하는 감정들에 별 다른 이면이 없었다. 더우면 땀이 나오듯이, 슬프면 눈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땀처럼 눈물도 믿고 살았다. 악어의 눈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했지만 최소한 17세기까지 악어의 눈물이 상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눈물은 아픔이거나 슬픔이었고 벽찬 즐거움의 표현이었다. 분노는 진지했으며 기쁨은 공감 받았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잘 설명해 주듯이, 희로애락의 표현이 외교의 일종으로까지 상대에게 먹혔던 만큼 이성과 감정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³⁾

동론의 Ezra Pound, Knut Hamson, Arthur Atkison, Frederick Soddy, Paul Lafargue, Louis de Villermé, Francois Rene de La Tour du Pin, Antoine Clair Thibaudé, Alban de Villeneuve Bargemon, Alexander Zinoviev, Michel Chossudovsky 근현대 역사학의 Henri Guilloin, Jacques Speer, Sheikh Imran Hosein, Anthony Sutton, Edwin Black, Norman Finkelstein, Ernst Zundel, David Irving, Stephane Courtois, Regin Pernoud, Mona Ouzouf, Sylvian Agacinsky, Aleksandr Solzhenitsyn, Shlomo Sand, Reynald Secher, Eileen Sullivan, Carl Berstein, Evan Burr Bukey, John Garraty, Gerd-Helmut Komossa, Sever Plocker, Paulo Lionni, Christina Hoff Sommers, Constance Cumbey, Paul Rassinier, Frida Utley, James Bacques, Daniele Ganser 등 잊혀졌거나 숨은 학자는 많으며 이들은 서구교과서가 서술하는 내용과 다르거나 정반대의 논지를 가지고 있다.

3) Elias N.(2001), 매너의 역사: 문명화 과정, 유희수 역, 한국: 신서원. 에라스무스 이래, 매너라는 것은 근대인들이 이해하듯이 위선이 아니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든가, 눈을 바라본다든가, 탁자에 앉는 자세라든가 하는 것은 개인이 진솔한 소통을 이루는데 필요한 격식과 같은 것이었다. 인간의 가치로서 이성을 강조했던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에 세비네(Mme de Sevigne,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흘러갔다. 희로애락의 표현이 희로애락의 내용과 제 멋대로 엮여 있다. 그런 면이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엮박자이다. 서민들에게 집을 장만해주겠다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뒤에는 탐욕스런 은행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은행가들의 아름다운 서민금융을 믿었다가 결국 참상이 났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가?

아프리카의 가난을 구해주겠다는 그린혁명 뒤에는 유전자 변형 산업이 있었다. 삭막한 도시가 더 커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그린벨트 뒤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었으며, 개발로 망가져 가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아름다운 발상 뒤에는 자원약탈의 차가운 욕망이 있었다.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자유운동 뒤에는 소로스의 금융전략이 있었고, 티베트 승려의 저항어린 분노 뒤에는 CIA의 공작이 있었다. 아동인권 뒤에는 소아성애자들이 버티고 있다. 금연표어 뒤에는 제약회사의 비흡연 니코틴 마케팅이 있다. 퇴직자들의 재테크 뒤에는 그들을 파멸시킬 파생상품들이 있다. 여성해방 뒤에는 기업의 노동정책이 있으며, 성적 소수자를 보호 운동 뒤에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생체실험이 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인권과 윤리를 함부로 들이대는가? 이런 차가운 마케팅의 세계에서 이들에게 잔정을 주고 그들의 미소를 믿겠다고?

자본주의의 미소는 마치 권투선수의 웃음과 같다. 승리를 계산한 신호이다.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험을 이룬 시절 체화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 국회의원들처럼 표를 얻으려면 방법이 없어서 탄핵에 찬성했다가 탈당도 했다가 복당도 했다가 하는 것이다. 무슨 신념이 아니라, 제 이익을 위한 철새 짓이다. 이에 감정을 이입하는 자본주의 부적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철새 짓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속에 사는 이상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아이템은 일단 차갑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며 이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꾸려 나갈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따뜻하고 깊은 정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1626-1696)는 감성과 눈물의 해석을 강조했다.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감성은 이성이 끼어들지 않는 마음의 솔직한 반영이라고 본 것이다. 진정 인간적인 차원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있다고 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그렇다는 것이다. Lignereux C.(2010), Bonne humeur contre belle humeur : la valorisation des larmes au xviiie siècle, Corps, 1/2010, n. 8, pp. 33-39.

4. 고개를 들어 세계를 보자

4.1. 서구의 이성이 몰락하고 있다.

2016년 12월 1일 프랑스의 지상파 방송 *France 2*는 자사의 간판 프로그램, ‘특별취재’ (Envoyé spécial)를 내 보냈다. 마크롱이라는 재무부 장관을 로스차일드 은행이 채용했고 현재도 그들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주요 블로거들은 이 30대 젊은이가 골드만삭스의 앞잡이니 조심하라 꾸준히 알렸다. 그러나 거대방송사들은 그를 일상으로 칭찬했다. 세계화주의자 자크 아탈리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치켜세웠다. 그는 당도 없었다. 지적 수준도 형편없었고 말투도 사춘기를 채 벗어난 수준이었다. 그가 만든 정치모임 명칭이 ‘가는 거야’ (En marche)였을 정도로 정견도 없었다. 홍보전략도 없어서 미국 샌더스의 선거광고 영상을 짜깁기 하여 그것이 프랑스의 미래라고 선전했다. 그는 선거는 구식이라는 말도 했다. 선거를 없애려고 출마했다는 말인지, 이런 종자를 프랑스 국민의 66.06%가 지지했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의 영터리 당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사람들에게 지지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젊고 잘 생겼다’ 였다. 이들은 마크롱이 골드만삭스로부터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마크롱의 당선 다음날,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가 유럽과 세계를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출마 5년 전(2012년)에 이미 알았던(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힐러리 클린턴도 축하했다. 66.06%의 표를 받았으니 음모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가 악마 루시퍼의 666 숫자를 들고 온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이처럼 뻔뻔하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아더 체스터튼의 말이 떠오른다. “악인의 부역자는 순진하고 선한 사람들이다”. 두려움에 찬 사람들은 겉으로 순진하고 선해 보인다. 양극화에 주눅이 들어 있으며 제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휩싸여 살아 왔던 프랑스 국민은 결국 더욱 더 큰 불행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고 만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이라는 젊은이의 심성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 정치절차에 따라 후보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또한 그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설명하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여 그를 찍었다. 이들

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과 유럽의 시민은 자국 대통령이나 총리, 정치인들을 매수한 장본인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도 모른 척 해왔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가 기업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과 자식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임금을 낮추었으며 연금을 빼앗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중산층을 몰락시켰으며 몇 국가들을 파탄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도 고개를 돌렸다. 그것도 대형서점의 서적들이나 지상파 방송들이 직접 나서서 알려준 내용이었다. 작금의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국민들은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더 가관은 자칭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스톡홀름 증후군 혹은 아몰랑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노동력과 아프리카의 자원을 약탈하여 대규모 이민을 부른 사태를 다문화라 좋아하면서 약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CIA의 동유럽 자유운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벌어진 조작테러에 동조했다. 이들은 서구대학의 지성을 파괴한 볼로냐 프로세스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으며, LGBT와 여성주의 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포드와 카네기 재단을 칭송했다. 진보지식인이라는 이 바보들은 이들 재단이 GMO, 장기교환, 인공임신,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NBIC(나노-생명-정보-인지 공학)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초국적 기업의 기획실이라 알려주어도 음모론 퍼뜨리지 말라며 허허실실 대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세계 금융계의 꼭두각시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을 본 정치평론가들은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원했던 참신한 인물”이라며 헛소리를 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는 자신도 마크롱처럼 새로운 인물이라며 무식을 드러내었다. 그가 했던 것처럼 배낭을 메고 ‘국민 속으로’ 뛰벽이 코스프레를 했다. 한국대중 마저도 지상파 방송이 알려 주고, 신문도 알려주며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도 끝없이 알려주는 서구 정치, 경제사의 진실에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중은 진정 집단적인 바보가 되어 버린 것일까.

4.2. 서구의 정치도 몰락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쏟기 시작한 닉슨을 거쳐 부시 부자 이후 완전하게 무너진 듯하고, 영국에서는 앞으로 사회를 돌보지 않겠다던 대처 이래 아예 족적을 찾을 길이 없다. 그 어느 정당, 법원, 정부부처도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민의(Public Opinion)로 굴러가는데, 민중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아 민의가 흩어졌고 민의가 모이지 않으니 민주주의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 대학과 미디어는 다양성을 보장하자, 차별을 금지하자며 세상만사를 1:1:1로 평균화시키고 있다. 지적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민의라는 것은 몇 가지 정치논리 속에 묶여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뿌리부터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총리직이 단순한 알바라던 베를루스코니 이후 민주주의의 싹수가 사라진 듯하고, 프랑스에서는 무엇이든 시장천지로 만든 사르코지가 말 그대로 모두 망쳤다. 오죽하면 금융계가 내세운 코홀리개가 대통령이 되는 참상마저 벌어졌을까. 독일에서는 슈로더 이후 더욱 더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연방제이니 아직은 지방의 자치권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웃을 따라가는 듯하다.

유럽연합이 본격화 한지 20여년, 유럽의회는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거수기로 남았다. 월 스트리트 멤버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유럽 각국 정책의 75%를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민’ 자도 붙일 수 없는 미국과 유럽이 되어 버렸다. 세계 초유의 기업들이 서구 국가 전반을 장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147개 초국적 기업들이 서구 정부 전반을 통치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전 글에 자세히 적어 놓은 바 있다.

정치의 힘이 아직 남아 있는 비서구 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리송하겠지만 서구의 근대정치는 이미 끝났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주권재민, 대의 민주주의 같은 것은 껌테기로 남았다. 미국 민주당이 힐러리 같은 기업지상주의자를 탄생시키듯, 국민생활을 우선시 했던 유럽의 진보좌파들도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보수우파라는 말은 돌아다니지만 실제의 보수우파는 중도파에 의해 휩쓸려 갔다. 자기들이 한 짓이 마음에 췌려서 랄까,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의 사회당 같은 과거의 진보좌파는 위와 같은 정책비전을 무조건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디어 조작을 기업이 부추기고 진보좌파가 실행한다.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소스를 얻어오던 과거의 서구가 더 이상 오늘날의 서구가 아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상대할 이들은 서구의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 기업이다.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다.

4.3. 서구정치는 경제계가 장악했다

기업의 마케팅은 정치인의 꿈을 훨씬 넘어서 비상하게 움직인다. 치열한 시장에서 단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합집산이나 일삼는 정치인들의 낮은 수를 상대하지 않는다.

미국 본사 소재 기업인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기세등등하게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내밀었던 아젠다가 있었다. 미-캐나다 NAFTA 협정안을 기초로 1993년도에 드래프트가 작성되어 1995년 OECD에 제출, 논쟁을 일으켜 몇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결국 폐기된 다자간 투자협정(MAD)이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폐기 됐지만 세계 초기기업 엘리트의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언제나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드래프트와 후행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규제의 최소화이다. 국경선을 없애고 자유로이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자는 것이다. 국가가 투자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할 전기, 수도, 각종 SOC에 자기들도 같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웠던 것은 진보적 자유였다. 2.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다. 국가의 부당한 침해에 불쌍한 개인이 항의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반스탈린 신좌파적인 마인드이다. 3. 환경문제로 인한 기업손실은 국가가 부담한다였다. 환경을 망치거나 천재지변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니 추후 희생당할 기업의 아픔을 국가가 먼저 달라는 것이다. 신좌파적인 사고방식이다. 4. 수익자본 이동의 자유이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국외로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워야 하듯이 자본도 자유로워야 자유의 이념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신좌파의 논리다. 5. 노동기본권, 자본과세 언급금지였다. 노동기본권은 나라마다 다른데 서구기업이 아시아 노동력을 쓰면 노동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자본의 순환이 필수적이니 과세해서 돈맥경화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휴머니즘적이다. 6. 이를 위해 유엔에서 독립적으로 주창된 것이 양성평등이었다. 자본이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면 예전에는 집에서 돈이나 쓰던 여자들도 일을 하러 나올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엉망이 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니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진보좌파적인 생각이다.⁴⁾

서구의 진보좌파는 초국적 기업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사탕발림 항목 하나하나가 진보좌파 정치인들의 속내를 움직였다. 말은 반대한다 해놓고도 그래도 국민에게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알량한 추측에 빠져 초국적 기업의 끝없는 로비와 협박 앞에 무너져 갔던 것이다. MAI의 내용은 세계 농민, 노동자들의 비판에 의해 전략상 접었지만 내용은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FTA 등의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실효화되었다.

농민, 노동자와 서구 진보좌파의 골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았으며 좌파와 우파가 의견을 조율하며 사이 좋게 국민을 배신했다. 한국에서 노무현이 FTA에 설득당한 경우와 같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진보좌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잘 구분하던 자유와 자유주의를 서로 혼동한 것이다.

1. 국가규제의 최소화/2.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결국 국가의 주권을 기업에게 양도하게 만든다. 3. 기업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기업이 가져가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끝없이 기업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4. 수익 자본이동의 자유/5. 자본과 세 금지는 전 세계를 금융가들의 손아귀에 넣게 만든다. 6. 양성평등은 여성 예비 노동력을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내어 임금을 전체적으로 낮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LGBT, 가족과이를 주창함으로써 제약 및 의료, 생명공학 기업들이 이끄는 NBIC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사실이다. 즉 로봇과 차별 없는 인간신체와 정신문화를 이끄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나 여성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 왔던 여성주의자들이 보면 억울하겠지만 세상물정이 이렇다.

작금 미국 트럼프의 FTA 재협상 운운이 가소로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워싱턴발 서울행 비행기가 이미 강원도에 접어들었는데 기수를 바꾸어 보았자 내릴 곳은 청주공항 정도일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마케팅에 끌려가다가 나라 망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구태를 벗어나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남을 여혐이라든가, 마초라든가, 꼴통이라든가, 중북이라든가, 무질서라든

4)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Draft, Jan. 13, 1997. <http://multinationalmonitor.org/mai/contents.htm>. 특히 6) 사항의 정밀한 논의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http://www.unrisd.org/>

가, 극우라든가, 빨갱이라든가 중도라든가 함부로 지껄인다는 말인가.

세상이 뒤집어 졌다. 우리시대의 이념적 패러다임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케케묵은 구분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 중심의 세계화주의(Globalism)와 민족, 지역, 종족, 마을 단위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sm) 사이에서 존재한다. 물론 오늘날 논의되는 공동체주의는 과거에 오해를 받았듯이 고립주의, 인종주의, 반개민주의, 수구전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이념으로 토론되고 있다. 과거에 파시즘이라 불렀던 국가사회주의마저도 보다 열린 방식으로 이념을 재정비하고 있다. 다른 이념들도 처음부터 다시 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함부로 설레발을 치면 안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를 다음처럼 정리 할 수 있다.

	세계화주의	공동체주의
주체	월 스트리트 & 런던시티	반 세계화주의자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러시아, 시리아, 팔레이시아, 노르웨이
목표	세계 경영	민족국가 주권 유지
제도	UN, World Bank, BIS, IMF, ECB, NED, CIA, NGO	민족국가 헌법 & 국민투표
표어	Unity in Diversity Global Village Personal is Political	Anti-Globalism Open Nationalism Personal is Social
영역	금융, NBIC 산업*	협동조합, 농수산, 제조업
도구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주의, LGBTq, 다문화주의, 국제 사회주의, 연방주의 등	협동조합, 농수산, 제조업, 주권민주주의, 기본소득제, 민족주의, 여권주의, 지방독립, 국가 사회주의, 연합주의 등
구태	진보, 좌파, 제국주의	보수, 우파, 민족해방
홍보	대학, 대중미디어, 여성단체, NGO	가톨릭 전통단체, 진보 개신교회, 보수단체, 블로그
계급	중산층, 보보스	노동자, 농민, 자영업

*바이오-나노-정보-인지공학(NBIC,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5.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나서기 전에...

프랑스의 지성 옹프레는 ‘바보가 되어 버린 프랑스’ 라 했다. 가만 지켜보니, 작금의 프랑스 같은 사태가 한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구태의연함과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이라는 30-40대 보보스, x-세대를 보면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짓자를 견게되지 않을까 두렵다. 진보세력이라는 한국사람들 속에 죽대없는 사민주의자들과 봉건질서에 익숙한 엘리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우려면 단추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단추구멍을 찾아야 한다. 즉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물정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서구의 뿌리를 가진 근대가 자기와 정신과 신체가 다르고, 알기도 어려워 소화하기 어려우면 벨으면 된다. 벨거나 삼키거나 해야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벨지도 삼키지도 못하니 다른 정치, 경제, 문화를 실험해 볼 기회도 없는 것이다. 세계를 다녀보면 수없이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를 발견한다. 서구가 만든 것만 모방하고 쫓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벨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서구의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이 과연 맞이나 있는 정치체제일까?

한국정부는 한국만의 정치, 행정모델을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구의 모델은 너무 낡았거나 껌테기만 남았다. 낡아 빠진 집의 전세 들어가 살면서 무슨 내부 수리공사인가. 나중에 주인도 싫어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대통령제, 내각제 같은 구태의연한 정제 말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모델이나 지방자치 연합 정도는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살려야 시가 살고 도가 살며 나라가 사는 것은 국가기능의 이치이다. 이러구러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이 부족해 보인다면 공화제는 유지하되 추첨 민주주의를 통한 책임정치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은 알 것이다. 촛로도 정치를 할 줄 안다.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른다. 국민을 무시하면 벌 받는다. 최대한의 민권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인세대는 사기꾼들을 추켜세우며 젊은이들에게 샷대질하던 적반하장의 행태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 뒤를 밀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전통 속에서 무슨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100년은 훌쩍 건너 뛰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적 삶의 전통은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까지 100년의 과거는 전통도 아니고 한국민족 본연의 역사도 아니다. 일제 뒤로 조선시대로 돌아가 거기서 전통을 고민해야지 일제, 자유당, 공화당 시절처럼 전통과 완벽히 단절한 시대에서 무슨 전통을 찾는가. 왕정의 체제보다는 왕정의 정치적 묘미와 철학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읽고 쓰기만 잘하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읽었던 책의 요약본도 못 읽어 찢찢매고 어머니가 군대에 보내는 편지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 난필의 세대 아닌가. 읽고 쓰는 것만 잘하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왕 읽고 쓰는

것을 하려면 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버지가 읽었던 고전 따위를 읽지 말고 고전이라고 국가가 선정한 책이 출간되던 당대의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찾아 읽어 보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 되던 각 시절에 그에 상응하는 위대한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자본주의와 국가가 숨겨온 것들이다. 앞의 각주(2)를 괜히 챙긴 것이 아니다. 마음에 쓴 책이 정신에 좋다.

젊은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팔팔한 젊은 나이에 남 탓부터 배워서야 쓰나. 불평등한 국가와 사회제도를 상대로 항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성들도 이것들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를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실은 소수의 남성들이 그리 할 뿐이다. 남성의 권리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떼어 주는 것이 아니다. 괜한 오해를 부르지 말고 여권은 남권과 함께 공동으로 얻어왔으며 얻은 것을 또한 공유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기업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여성주의의 현실에 눈을 뜰 때이다. 다수의 여성과 남성이 소수 남성들에 의해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BNIC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주체에 비판을 하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며 마음에 있지도 않는 험악한 단어들을 쏟아 내는 영미 여성주의의 독특한 공격성을 따라하는 사대주의자들이 한국에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참견 좋아하는 노인들처럼, 젊은 나이에 무슨 착각이 그리도 깊은가? 누구는 자기만큼 생각과 도덕이 없는 줄 아는가? 미국이 이끌어가는 저질의 여성주의(Feminism)로 고귀한 여성의 권리(Women's rights)를 파괴하면 안 된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여성을 주장하면 뭘 어찌자는 것인가? 영미 여성주의와 세계의 여권론을 분리할 때가 왔다. 한국의 여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부분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올림픽 1, 2, 3, 4, 5위를 짝씩 하는 스칸디나비아가 무슨 이유로 양성평등 연구소를 폐쇄했는지 참고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골칫덩어리, 대학이다. 학생은 갑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다. 학생들을 이끌어야지 학생들의 요구만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적으로도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브랜드는 품질과 개성으로 말하지 대면 서비스로 말하지 않는다. 대학교육이 얼마나 못났으면 학생을 매장 손님 대하듯 살살거리는가. 명문대학치고 학생서비스 따지는 일은 없다. 학생은 인권을 가진 이들이지 학생권리를 따로 가진 것이 아니다. 학생은

학생이다. 등록금은 챙기고 올리면서 표현도 모호한 학생인권 설레발로 언제까지 학생을 기만할 것인가.

교수는 돈 벌어 오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 돈이 좋으면 업종전환을 하면 될 일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교수를 상대로 임금이나 낮추는 사회 병리다. 물론 한국만의 참상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아주 이르게 장사치로 변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대학들도 돈벌이 열풍 속에서 교육의 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학이 하도 반교육적인 행태를 부리다 보니 영국대학 교수협회인가 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고전이 있어서 다행”이라 자족한다. 이것이 참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는 더욱이 아닌 정보(information)다. 그까짓 정보는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는 것들이다. 그런 정보들을 펼쳐 놓고 학생들에게 발표나 시키는 곳이 어찌 대학인가. 정보란 것은 이미 형태와 뜻이 정해져 있는 불변항인데 그 안에서 무슨 변이항이 나오겠는가? 지식은 주어진 정보 이면의 역사, 논리와 구조이며 그것을 통해 얻어가는 창조적 개념들이다. 정보 데이터를 읽어보라거나, 더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가 수집된 배경과 작동기능의 원리,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맺는 관계,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오히려 그런 정보가 가진 문맥마저 정보 안으로 흡수시켜 이해하려는 인간말종의 행태마저 보인다. 상황 그 자체를 데이터 처리 가능한 정보로 보고 싶은 것이다. 상황과약도 하지 못하도록 학생과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할 뿐,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니 인공지능 같은 동어반복, 코드전환적인 데이터 기계와 다름없는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식과 지혜에 어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는 말인가? 정보모델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정갈하려면 노이즈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 바로 이 노이즈에서 나오는데 이를 없애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한참 낮추어 놓고 나서 인공지능 기계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런 인간말종의 교육형식과 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무슨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생각부터 하지는 것이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걸어도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업무 도중에는 업무진행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업무에 대한 반성은 집에 와서

하는 것이다. 곰곰이 벤치에 앉아서 생각부터 좀 하고
화를 내든 웃든 할 것이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
던 일을 하던 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살아왔다. 그 사이 너무 많은
정신들이 이리저리 무너지고 깨지고 삭아서 흐뜨려져
버렸다. 그러하니 서구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허겁지겁 따라갔던 것 아닌가.

한국정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실은 세계정치 상
황이 더 크게 달라졌다. 예전의 가치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뒤바뀌고 있다. 근대 서구가 몰락해 가고 있
는 것이다.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가슴도 아프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다시 취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미래로 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세계를 주시하고 자신을 반성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건투를 빌어보자.